건강을 지키는 현장

"자폐아동에게는 주위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폐아 치료와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인지과학연구소

몇해 전 신문에 보도된 어떤 사건이 있었다. 자폐아를 둔 아버지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것이다. 가정형편이 넉넉치 못한 상황이어서 아이를 그대로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던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잘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된 자폐아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인지과학연구소(송파구 잠실동 189-1)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자폐아동의 연구를 우선으로 하며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한 소수 아동의 치료도 하고 있었다. 40%의 치료와 60%의 관찰을 통한 학습방식으로, 비디오 촬영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를 관찰한다고 한다.

혼자만의 세계를 꿈꾸는 자폐아

서울 잠실에 위치한 한국인지과학연구소(소장 여문환씨)는 1987년 태동하여 지금까지 자폐아동을 위한 치료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자폐아 연구기관이다.

자폐아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외부와 자신과의 관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하는 것으로 정상 아동과는 구분된다.

자폐아는 정상적으로 국민학교에 진학하여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부모와 아동간의 갈등 또한 심하게 나타난다. 또, 형제들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자폐증 환자가 있다면 형제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한다.

일반 국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으로 치료

이러한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여문환씨는 7년전 한국인지과학연구소를 설립, 자신이 대학원에서 전공했던 교육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폐아동을 위한 치료 사업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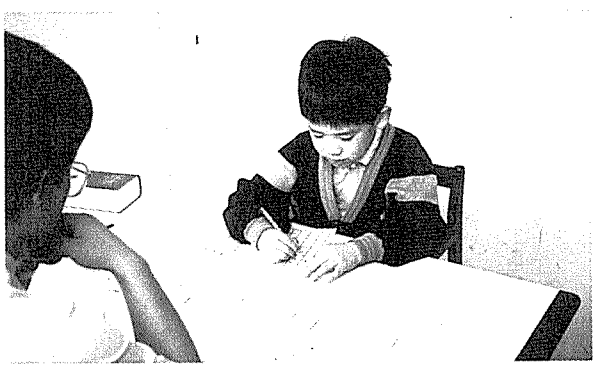
그러나 모든 자폐아동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 우선적으로 취학전 4세에서 7세까지의 아동 중 순수한 자폐아만을 선정하여 교육시키고 있다.

1987년에 설립된 한국 인지과학연구소는 자폐아동에 대한 연구와 치료를 하는 곳이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모든 자폐증 아동을 다 치료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 자폐아와 순수 자폐아를 구분하여 순수한 자폐증을 가진 아동만을 교육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교육 과정을 다 마친 아동들은 일반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정상적인 아동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실제로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복합 자폐아(다른 정신장애가 겹친 자폐아동)와 순수 자폐아를 구분하는 기준은 미국의 자폐아동연구소 자료에 의한 4일 동안의 상담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진단이 끝나고 실제적인 교육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연구소의 독자적인 개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문환 소장은 말한다.



취학전 4세에서 7세 아동 중 순수자폐아만을 선정, 교육시켜 정상아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많은 아동을 치료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죠."

한국 인지과학연구소에서는 많은 인원의 자폐아를 받지는 않는다. 한달에 25만원이라는 수업료가 적은 액수도 아니지만 우선은 연구가 목적이고 또한 이러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면 그때 많은 인원을 치료해도 늦지 않으리라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와 비슷한 기관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로 원래 교육 목적에서 크게 일탈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이곳의 존립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더욱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소장의 얘기다.

무료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몇해 전 신문에 보도된 어떤 사건이 있었다. 자폐아를 둔 아버지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고 만 것이다. 가정형편이 넉넉치 못한 상황이어서 아이를 그대로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던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이 보도를 접한 여소장은 여섯살 난 그 아이를 지금까지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는데, 총 2년 5개월의 과정중 18개월 동안의 치료를 받은 이 아동은 이제 말도 잘하고 한글도 다 깨우친 상태로, 남은 과정을 끝내게 되면 정규 학교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매주 토요일, 자폐아에 대한 무료상담도 실시한다.

"연구 시간 부족으로 많은 아동을 받지는 못하지만 상담은 토요일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 방향설정만 잘 해 준다면 가정에서 가족들의 노력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폐아라고 해서 교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상아동과 똑같은 학습단계를 거치며, 다만 심리 치료를 병행하여 학습의 단계를 더 세밀히 나누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물론, 상담은 무료이고 연락은 서울 417-0917로 하면 된다.

현재 박사과정을 준비중인 여문환 소장은 이제 좀 더 확장된 청사확보와 함께 전국에 지소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자폐아동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뜻있는 교사들이 함께 연구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